『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4)*

-권8 07:01-08:22를 중심으로-

이전경**

요 약

각필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의 7장 1행부터 8장 22행까지의 점토를 정리해 보고 잠정적인 해독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이 글은 유가사지론 권8의 7-8장의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에 나오는 점토는 아래와 같다(괄호는 대응하는 자토이다).

단점(·): 11(𠂤), 15(ホ), 21(冖), 22(氵), 22~23(丩), 23(𠂉), 24(氵,𠂇), 22~32(刂), 23~33(入ㄱ), 31(人), 33(ㄱ), 34(乙), 32~42(ハ), 33~43(卬), 41(土), 42(七), 44(十), 51(丨), 53(一), 54(下), 55(𠂆)

사선 쌍점(.·): 21(X), 55(x𠂆)

---

* 이 글은 지난 2003년 9, 10, 11·12월의 세 차례 월례강독회에서 배포한 요지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수정한 내용은 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역사선 쌍점(·.): 51(x ㅣ),
수직 쌍점(:): 51(x ㅣ)
수평선(-): 15~25(尸)
수직선(|): 43(x灬)
사선(/): 11~21(X), 15~25(x矣), 21(X), 33(ノ丁), 21(X), 33~43(ノ丁 印)
역사선(\): 33(ノ丁), 42(ノ亇七), 45(x入乙), 44~55(x十)
점·선 복합(·\): 15(X)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쌍점이나 선의 경우 해독이 미흡하다. 'x矣, x十, x入乙, x ㅣ, x分' 등은 'x'부분을, 'X'는 토 전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룰 부분의 내용은 尋伺의 작용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세가지 측면(煩惱, 業, 生)으로 나누고 각각 9가지 연고(自性, 分別, 因, 位, 門, 上品, 顚倒攝, 差別, 過失)로 설명하는 가운데, 煩惱 差別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번뇌 차별의 종류 26가지를 열거하고 각각의 이유를 든 다음 이 각각을 또 다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판독문(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를 판독한 결과)
B: 자토 대입문(현토된 점토에 대응 구결자 표시)
C: 자토 해독문(자토 석독 구결문으로 해독한 결과)
D: 현대어 직역문(구결문에 근거하여 현대어로 축자역한 결과)
E: 역경원 번역문(한글대장경의 해당 부분)

<유가 권8 07:01>
A: 煩惱差別[51(·)]者[23~33(·)]多種差別[33~43(/)]應知[42(\),51(·)]
B: 煩惱差別[ㅣ]者[入丁]多種差別[ノ丁 印]應知[ノ亇七, ㅣ]

C: 煩惱差別(ㅢ)ㅣ{者}(ㅅㄱ)ㅅㄱ 多種 差別ㅅㄱ 印 知ノ ㅎ{應}ㅌㅣ

D: 煩惱差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差別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E: 번뇌의 차별(煩惱差別)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차별하게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유가 권8 07:01-05>

A: 謂結[31(·)]縛[31(·)]隨眠[31(·)]隨煩惱[31(·)]纏[31(·)]暴流[31(·)]扼[31(·)]取[31(·)]繫[31(·)]盖[31(·)]株杌[31(·)]垢[31(·)]常害[31(·)]箭[31(·)]所有[31(·)]根[31(·)]惡行[31(·)]漏[31(·)]賢[31(·)]燒[31(·)?]惱[31(·)]有諍[31(·)]火[31(·)]熾然[31(·)]稠林[31(·)]拘导[31(·),33~43(·),=53(·)]如是等[33(/)]類[34(·)]煩惱差別[53(·),+51(·.)]

B: 謂結[ㅅ]縛[ㅅ]隨眠[ㅅ]隨煩惱[ㅅ]纏[ㅅ]暴流[ㅅ]扼[ㅅ]取[ㅅ]繫[ㅅ]盖[ㅅ]株杌[ㅅ]垢[ㅅ]常害[ㅅ]箭[ㅅ]所有[ㅅ]根[ㅅ]惡行[ㅅ]漏[ㅅ]賢[ㅅ]燒[ㅅ]惱[ㅅ]有諍[ㅅ]火[ㅅ]熾然[ㅅ]稠林[ㅅ]拘导[ㅅ,印,ㅗ]如是等[ㅅㄱ]類[乙]煩惱差別[ㅗ,xㅣ]

C: 謂 結ㅅ 縛ㅅ 隨眠ㅅ 隨煩惱ㅅ 纏ㅅ 暴流ㅅ 扼ㅅ 取ㅅ 繫ㅅ 盖ㅅ 株杌ㅅ 垢ㅅ 常害ㅅ 箭ㅅ 所有ㅅ 根ㅅ 惡行ㅅ 漏ㅅ 賢ㅅ 燒ㅅ 惱ㅅ 有諍ㅅ 火ㅅ 熾然ㅅ 稠林ㅅ 拘导ㅅ印ㅗ 是 如 等ㅅㄱ 類乙 煩惱差別ㅗxㅣ

D: 즉 ①結과 ②縛과 ③隨眠과 ④隨煩惱와 ⑤纏과 ⑥暴流와 ⑦扼과 ⑧取와 ⑨繫와 ⑩盖와 ⑪株杌과 ⑫垢와 ⑬常害와 ⑭箭과 ⑮所有와 ⑯根과 ⑰惡行과 ⑱漏와 ⑲賢와 ⑳燒와 ㉑惱와 ㉒有諍과 ㉓火와 ㉔熾然과 ㉕稠林과 ㉖拘导이니 이와 같은 類를 煩惱差別이라고 한다.

E: 맺음[結]이요, 묶음[縛]이요, 수면[隨眠]이요, 따른 번뇌[隨煩惱]요, 얽음[纏]이요, 사나운 흐름[暴流]이요, 멍에[扼]요, 고집[取]이

요, 매임[繫]이요, 덮개[蓋]요, 그루터기[株杌]요, 때[垢]요, 항상 해침[常害]이요, 화살[箭]이요, 가지고 있음[所有]이요, 뿌리[根]요, 나쁜 행[惡行]이요, 샘[漏]이요, 모자람[匱]이요, 태움[燒]이요, 괴로와함[惱]이요, 다툼 있음[有諍]이요, 불[火]이요, 활활 탐[熾然]이요, 빽빽한 숲이요, 거리낌[拘礙] 따위이니, 이와 같은 종류로 번뇌가 차별되는 줄 알아야 하리라.

<유가 권8 07:05-05>

A: 當知[51(·)]此[42(·)]中[44(·)]能[55(·)]和合苦[34(·),21(.·)]故[41(·)]名[54(·)]爲結[53(·),55(·.)]

B: 當知[ㅣ]此[ㄴ]中[十]能[ㄱ]苦[乙]和合[X]故[ㄷ][1]名[下]爲結[ㅗ,xㄱ]

---

1) 자토 석독구결에는 다음과 같은 '故ㄷ'의 용례가 나타난다.

보기: 一 非矣ㄱ 異 非矣ㄷ로 故ㄷ 名ㅋ 續諦ㅅ ノオリㄱ <구역十四:8-9>

悉ㅋ 免離 使リ[欲]ㅅ 故ㄷ 出家ノㅋㅎ 解脫し 得ㅋ <화엄18:16-17>

修行ノㅋㅎ 轉ノ[令]リㅋノオㄱリㅋセロンヒ尸入ㅠ 故ㄷ 彼リ 正法行し 修習ノ个セ 時ㅗ十<유가06:04-07>

相應 作意加行し 修ノ[爲]ㅅンア入ㅠ 故ㄷ 二種加行方便 [有]ㅐナ个セ ㅣ <유가25:04-06>

聖所住處ㅋ十 安住ノきンㄱ入し [以]ㅋㅋ 故ㄷ 名下 功德ㅗノオㅣ<유가31:05-07>

衆 經ㅋセ[之] 王リケンニㄱ入ㅠ 故ㄷ 得ㅋㅎ 聽聞ノき 受持ノき 讀ノき<금광13:22-25>

21 위치에는 사선, 사선 쌍점, 역사선이 나타나는데, 이 중 사선 쌍점이 '故ㄷ'와 관련된다. 자토의 예가 적어서 이 중 어느 경우에 대응시켜야 할지 충분한 근거가 없다. 위의 예로 볼 때 '故ㄷ' 앞의 문장은 이유 또는 순차의 연결어미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07:08'에서 '08:01'까지 같은 구조의 문장이 26회 반복되는데 이 중 4, 6, 14, 26 번째에 '43(|)'이, 18 번째에 '21(/)'이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21(.·)'이 쓰였다. 따라서 이들을 의미상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대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이유'로 해석하였다.) 또, 이들을 이 위치의 단점 'ㅎ' 또는 수평선 'ㅌ'와 관련짓는 논의도 가능하다.

C: 當(ㅅ) 知(ㄱ)ㅣ 此ㄴ 中十 能ㄱ 苦乙 和合X 故ㄷ 名下 {爲}結 ㅗxㄱ[2]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①이 가운데에서 능히 괴로움과 화합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結이라고 하며

E: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괴로움과 어울리기 때문에 맺음이라 하며,

<유가 권8 07:06-06>

A: 令於善行[44(·)]不隨所[15~25(-),32~42(·),24(·),21(.·)]欲[34(·),21(·),15~25(-),지시선]故[41(·)]名[54(·)]爲縛[53(·),+55(·.)]

B: 令於善行[十]不隨所[尸,ㅅ,ㅅ,X]欲[尸,乙,ㄱ]故[ㄷ]名[下]爲縛[ㅗ,xㄱ]

C: {於}善行十 欲尸 所乙 隨ㄱ(ㄴ)尸 不ㅅ{令}ㅅ(ㅂ)X 故ㄷ 名下 {爲}縛ㅗxㄱ

D: ②善行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縛이라고 하며

E: 착한 행에 대하여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묶음이라 하며,

<유가 권8 07:06-07>

A: 一切世間[42(·)]增上種子[23(·)]之所隨逐[33(\),21(.·)]故[41(·)]名[54(·)]隨眠[53(·),55(·.)]

B: 一切世間[ㄴ]增上種子[ㅋ]之所隨逐[ㄴㄱ,X]故[ㄷ]名[下]隨眠[ㅗ,xㄱ]

C: 一切世間ㄴ 增上種子ㅋ{之} 隨逐ㄴㄱ 所X 故ㄷ 名下 隨眠ㅗxㄱ

D: ③온 세상의 增上種子가 따르는 바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隨

2) 동일한 구문의 자토구결은 'ㅗㄴㅎㄱ, ㅗㄴㄱ'가 나타난다. 이 위치의 단점을 'ㄱ'로 보면 사선 쌍점을 'ㄴㅎㄱ', 역사선 쌍점을 'ㄴㅎㄱ'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 위치의 사선 쌍점, 수평 쌍점, 수직 쌍점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추정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眠이라고 하며

E: 온갖 세간의 더하여 줌의 종자[增上種子]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수면이라 하며,

<유가 권8 07:08-08>

A: 倒[역독선]染心[34(·),24(·),43(ㅣ),경계선]故[21(·)]名[54(·)]隨煩惱[53(·),55(·.)]

B: 倒染心[乙,ㅅ,x灬]故[丿]名[下]隨煩惱[亠,x分]

C: 染心乙 倒ㅅ(ㅛ)x灬{故}丿 名下 隨煩惱亠x分

D: ④물든 마음을 전도시키는 까닭으로 일컬어 隨煩惱라고 하며

E: 뒤바뀌고 물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따른 번뇌라 하며,

<유가 권8 07:08-09>

A: 數[22~32(·)]起[역독선]現行[34(·),21(.·)]故[41(·)]名[54(·)]爲纏[53(·),55(·.)]

B: 數[ㅛ]起現行[乙,X]故[ㅊ]名[下]爲纏[亠,x分]

C: 數ㅛ 現行乙 起X 故ㅊ 名下 {爲}纏亠x分

D: ⑤자주 現行을 일으키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纏이라고 하며

E: 자주 일어나서 나타나 행해지기 때문에 얽음이라 하며,

<유가 권8 07:09-09>

A: 深[15(·)]難[24(·)]渡[15(·\),43(ㅣ)]故[55(·)]順流[22(·),경계선]漂[43(ㅣ)]故[21(·)]名[54(·)]暴流[53(·),+55(·.)]

B: 深[ホ][3]難[ㅔ][4]渡[X,x灬]故[分]順流[ㅋ]漂[x灬]故[丿]名[下]暴流

3) 이 위치에서 'ㅁ'와 'ホ'에 해당하는 단점이 구별된다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서민욱(2004)) 'ホ'에 해당하는 단점은 오른쪽 획의 끝에 거의 붙어서 찍히고 'ㅁ'에 해당하는 단점은 멀리 떨어져 찍힌다.

[ㅗ,x가]

C: 深(ㅣ)ホ 難ㅓ 渡Xxᄆ[5]{故}가 順流ㅣ 漂xᄆ{故}ノ 名下 暴流ㅗx가

D: ⑥깊어서 어렵게야 건너는 까닭이며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까닭으로 일컬어 暴流라고 하며

E: 깊어서 건너기 어렵고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기 때문에 사나운 흐름이라 하며,

<유가 권8 07:10-10>

A: 邪行方便[21(.·)]故[41(·)]名[54(·)]爲扼[53(·),55(·)]

B: 邪行方便[X] 故[ㅈ] 名[下] 爲扼[ㅗ,x가]

C: 邪行方便X 故ㅈ 名下 {爲}扼ㅗx가

D: ⑦그르게 행하는 방편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扼이라고 하며

E: 사뙤게 행해지는 방편이기 때문에 멍에라고 하며,

<유가 권8 07:10-11>

A: 能[55(·)]取自身[34(·),21#21~31(·),22(·)#=23(·)]相續不絶[24(·)?,21(.·)]故[41(·)]名[54(·)]爲取[53(·),55(·.)]

B: 能[가] 取自身[乙,ㅁ,ㅣ]相續不絶[ㅅ,X]故[ㅈ]名[下]爲取[ㅗ,x가]

C: 能가 自身乙 取ㅁㅣ[6] 相續不絶ㅅ(ㅐ)X 故ㅈ 名下 {爲}取ㅗx가

D: ⑧능히 자기 몸을 취하여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取라고 하며

E: 제 몸을 고집하여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라 한다.

---

4) 월례강독회에서 '썰비사'(남풍현), '어렵사리'(이승재)와 같은 독법이 제안되었다.

5) 이와 같은 구문의 자토에는 'ㅅㅐㄱㅅᄆ, ㅅㅏㄱㅈㅅㅏㄱㅅᄆ, ㅅㄱㄱㅅᄆ'가 나타난다. 예가 많지 않고 15 위치의 단점이나 선과 연결시킬 자료로는 충분치 않다.

6) 'ㅁ'는 말음 첨기일 가능성이 있다.

<유가 권8 07:11-11>

A: 難[24(·)]可解脫[42(\),21(.·)]故[41(·)]名[54(·)]爲繫[53(·),55(·.)]

B: 難[亻]可解脫[丿ㅎ七,X]故[ㅈ]名[下]爲繫[ㅗ,xㄱ]

C: 難亻 解脫丿ㅎ{可}七X 故ㅈ 名下 {爲}繫ㅗxㄱ

D: ⑨어렵게야 해탈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繫라고 하며

E: 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임이라 하며,

<유가 권8 07:12-12>

A: 覆[역독선]眞實義[34(·),21(.·)[7]]故[41(·)]名[54(·)]爲盖[53(·),55(·)]

B: 覆眞實義[乙,X]故[ㅈ]名[下] 爲盖[ㅗ,xㄱ]

C: 眞實義乙 覆X 故ㅈ 名下 {爲}盖ㅗxㄱ

D: ⑩眞實義를 덮으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盖라고 하며

E: 진실한 뜻을 덮기 때문에 덮개라 하며,

<유가 권8 07:12-13>

A: 壞善稼田[21(.·)]故[41(·)]名[54(·)]株杌[53(·),55(·.)]

B: 壞善稼田[X]故[ㅈ]名[下]株杌[ㅗ,xㄱ]

C: 善 稼田 壞X 故ㅈ 名下 株杌ㅗxㄱ

D: ⑪잘 농사 지은 밭을 망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株杌(그루터기)이라고 하며

E: 좋은 곡식 밭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루터기라 하며,

<유가 권8 07:13-13>

A: 自性染汙[22~32(·),21(.·),4자합부]故[41(·)]名[54(·)]爲垢[53(·),55(·.)]

---

7) 선으로도 보이나, 주름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B: 自性染汙[ㅣ,X]故[ㄴ] 名[下]爲垢[亠,x分]
C: 自性染汙ㅣX 故ㄴ 名下 {爲}垢亠x分
D: ⑫自性染汙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垢(때)라고 하며
E: 제 성품이 더러움에 물들기 때문에 때라 하며,

<유가 권8 07:13-14>
A: 常[22~32(·)]能[55(·)]爲害[21(.·),뻐침(22~32,\)]故[41(·)]名[54(·)]爲常害[53(·),55(·.)]
B: 常[ㅣ]能[分]爲害[X]故[ㄴ]名[下]爲常害[亠,x分]
C: 常ㅣ 能分 害 爲X 故ㄴ 名下 {爲}常害亠x分
D: ⑬항상 능히 해가 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常害라고 하며
E: 언제나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항상 해침이라 하며,

<유가 권8 07:14-15>
A: 不靜相[22~32(·),43(|)]故[55(·)]遠[22~32(·)]所隨[15~25(-),43(|)]故[21(·)]{41(·)}名[54(·)]爲箭[53(·),55(·.)]
B: 不靜相[ㅣ,xㅡ]故[分]遠[ㅣ]所隨[尸,xㅡ]故[丿]名[下] 爲箭[亠,x分]
C: 不靜相ㅣxㅡ{故}分 遠ㅣ 隨尸 所xㅡ{故}丿[8] 名下 {爲}箭亠x分
D: ⑭고요한 모습이 아닌 까닭이며, 멀리 좇는 바인 까닭으로 일컬어 箭(화살)이라고 하며
E: 고요한 모습이 아니고 멀리서 따르는 바이기 때문에 화살이라 하며,

<유가 권8 07:15-15>
A: 能[55(·)]攝[역독선]依事[21(.·),2자합부]故[41(·)]名[54(·)]所有[53(·),55(·.)]

8) 재조 대장경에는 '故故'로 되어 있다.

B: 能[ㄱ]攝依事[X]故[ㄷ]名[ㅏ]所有[ㅓ,xㄱ]

C: 能ㄱ[9] 依事(ㄹ) 攝X 故ㄷ 名ㅏ 所有ㅓxㄱ[10]

D: ⑮능히 依事를 포섭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所有라고 하며

E: 의지하는 일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음이라 하며,

<유가 권8 07:15-16>

A: 不善所依[21(·.)]故[41(·)]名[(54(·)]爲根[53(·),55(·.)]

B: 不善所依[X]故[ㄷ]名[ㅏ]爲根[ㅓ,xㄱ]

C: 不善所依X 故ㄷ 名ㅏ {爲}根ㅓxㄱ

D: ⑯不善所依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根이라고 하며

E: 좋지 못한 데에 의지하기 때문에 뿌리라고 하며,

<유가 권8 07:16-16>

A: 邪行自性[22~32(·),21(·.)]故[41(·)]名[54(·)]惡行[53(·),+55(·.)]

B: 邪行自性[ㅛ,X]故[ㄷ]名[ㅏ]惡行[ㅓ,xㄱ]

C: 邪行自性ㅛX[11] 故ㄷ 名ㅏ 惡行ㅓxㄱ

D: ⑰邪行自性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惡行이라고 하며

E: 사뙨 행이 제 성품이기 때문에 나쁜 행이라 한다.

<유가 권8 07:16-17>

A: 流動其心[34(·),24(·),21(/)]故[41(·)]名[54(·)]爲漏[53(·),55(·.)]

B: 其心流動[ㄹ,ㅅ,X]故[ㄷ]名[ㅏ]爲漏[ㅓ,xㄱ]

C: 其心ㄹ 流動ㅅ(ㅛ)X 故ㄷ 名ㅏ {爲}漏ㅓxㄱ

---

9) '能ㄱ'의 독법으로는 '시르며, 얻으며(어르며), 재며'가 제안되었다.

10) 자토구결 중 『유가사지론』은 'ㅅ ㅎ ㅛ ㅣ, ㅅ ㅍ ㅊ ㅣ'가, [화엄경]은 'ㅅ ㅎ ㅓ ㅣ'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는 견해(이승재)가 월례강독회에서 제시되었다.

11) '邪行(ㅛ) 自性ㅛX' 또는 '邪行(ㅅㄱ) 自性ㅛX'로 보충할 만 하다.

D: ⑱그 마음을 流動시키니, 그러므로 일컬어 漏라고 하며
E: 그 마음을 흘리며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샘이라 하고,

<유가 권8 07:17-18>
A: 能[55(·)]令受用无有猒足[15~25(-),24(·),21(.·)]故[41(·)]名[54(·)]爲匱[53(·),55(·.)]
B: 能[分]令受用无有猒足[尸,丷,X]故[厶]名[下]爲匱[亠,x分]
C: 能分 受用(乙) 猒足(丶)尸 无有{令}丷(刂)X 故厶 名下 {爲}匱亠x分
D: ⑲능히 受用을 물림과 만족함이 없게 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匱라고 하며
E: 수용하는 데에 만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모자람이라 하고,

<유가 권8 07:18-19>
A: 能[55(·)]令所欲[44(·)]常[22~32(·)]有匱[24(·),21(.·),경계선]乏[45(\),22~23(·),지시선]故[41(·)]名[54(·)]爲燒[53(·),55(·.)]
B: 能[分]令所欲[十]常[刂]有匱[丷,X]乏[x入乙,廾]故[厶]名[下]爲燒[亠,x分]
C: 能分 欲(尸) 所十 常刂 匱乏x入乙 {有}廾{令}丷(刂)X 故厶 名下 {爲}燒亠x分
D: ⑳능히 하고 싶어 하는 바에 있어서 항상 모자람이 있게 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燒라고 하며
E: 하고 싶어 하는 바에 언제나 모자람이 있게 하기 때문에 태움이라 하고,

<유가 권8 07:19-19>
A: 能[55(·)]引衰損[34(·),21(.·)]故[41(·)]名[54(·)]爲惱[53(·),55(·.)]
B: 能分 引衰損[乙,X]故[厶]名[下]爲惱[亠,x分]

C: 能ㅁ 衰損乙 引X 故ㅈ 名下 {爲}惱ㅗxㅁ

D: ㉑능히 衰損을 끄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惱라고 하며

E: 쇠망과 손해를 끌기 때문에 괴로워함이라 하고,

<유가 권8 07:19-20>

A: 能[55(·)] 爲鬪訟諍競[12][23(·)]之因[45(/),21(.·)]故[41(·)]名[54(·)]有諍[53(·),55(·.)]

B: 能[ㅁ] 爲鬪訟諍競[ㅋ]之因[xㅅ乙,X]故[ㅈ]名[下]有諍[ㅗ,xㅁ]

C: 能[ㅁ] 鬪訟 諍競ㅋ{之} 因xㅅ乙{爲}X 故ㅈ 名下 有諍ㅗxㅁ

D: ㉒능히 송사와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有諍이라고 하며

E: 송사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툼 있음이라 하며,

<유가 권8 07:20-21>

A: 燒[역독선]所[역독선]積集[33(\),42(·)]諸善根薪[34(·),21(.·)]故[41(·)]名[54(·)]爲火[53(·),55(·.)]

B: 燒所積集[ㄴㄱ,ㄷ]諸善根薪[乙,X]故[ㅈ]名[下]爲火[ㅗ,xㅁ]

C: 積集ㄴㄱ 所ㄷ 諸 善根薪乙 燒X 故ㅈ 名下 {爲}火ㅗxㅁ

D: ㉓쌓아 모은 바 모든 善根의 땔감을 태우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火라고 하며

E: 쌓아 모은 바의 모든 착한 뿌리 섶을 태우기 때문에 불이라 하고,

---

12) 글자의 하단부를 '竟'의 하단부와 같이 쓴 이체자이다. 재조대장경 중 '經律異相'에 용례가 있다. 겸획피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方廣大莊嚴經'에서 같은 자형인데 마지막 획이 결획된 피휘자가 나오므로, 이 글자는 '競'의 이체자로 보는 것이 좋겠다.

<유가 권8 07:21-21>

A: 如大熱病[11(·),21(.·)]故[41(·)]名[54(·)]熾然[53(·),55(·.)]

B: 如大熱病[ㅊ,X]故[ㄷ]名[ㅜ]熾然[ㅗ,xㄱ]

C: 大熱病 {如}ㅊX 故ㄷ 名ㅜ 熾然ㅗxㄱ

D: ㉔큰 열병과 같으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熾然이라고 하며

E: 큰 열병과 같기 때문에 활활 탐이라 하고

<유가 권8 07:22-22>

A: 種種自身[42(·)]大樹[22~32(·),구결자(ㅐ)]聚集[21(.·)]故[41(·)]名[54(·)]稠林[53(·),55(·.)]

B: 種種自身[ㄴ]大樹[ㅐ] 聚集[X]故[ㄷ]名[ㅜ]稠林[ㅗ,xㄱ]

C: 種種 自身ㄴ 大樹ㅐ 聚集X 故ㄷ 名ㅜ 稠林ㅗxㄱ

D: ㉕갖가지 자기 몸의 큰 나무가 모이므로, 그러므로 일컬어 稠林이라고 하며

E: 갖가지 제 몸이라는 큰 나무들이 모였기 때문에 빽빽한 숲이라 하고,

<유가 권8 07:22-08:01>

A: 能[13]令衆生[34(·),구결자(ㄹ)]樂着[2자합부-역독선]種種妙欲塵[34(·),24(·),43(|)]故[55(·)]能[55(·)]障[역독선]證得[2자합부-역독선]出世法[34(·),45(\),43(|)]故[41(·)]名[54(·)]爲拘导[53(·),+51(·.),경계선]

B: 能令衆生[ㄹ]樂着種種妙欲塵[ㄹ,ㅅ,xㅛ]故[ㄱ]能[ㄱ]障證得出世法[ㄹ,xㅅㄹ,xㅛ]故[ㄷ]名[ㅜ]爲拘导[ㅗ,xㅣ]

C: 能(ㄱ) 衆生ㄹ 種種 妙欲塵ㄹ 樂着{令}ㅅ(ㅐ)xㅛ{故}ㄱ 能ㄱ 出

13) 이 자료에는 '能'에 '55(·)'이 자주 현토된다. 그러나 55 위치에 굵은 주름이 있어 단점이 확인되지 않고 이점본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世法乙 證得x入乙 障x灬 故ㅗ 名下 {爲}拘导ㅗx ㅣ

D: ㉖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갖가지 妙欲塵을 즐거이 집착하게 하는 까닭이며, 出世法을 證得하는 것을 막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일컬어 拘导라고 한다.

E: 중생들에게 갖가지 묘한 욕심의 티끌에 즐거이 집착하게 할 수 있고 세상 벗어난 법을 증득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거리낌이라 한다.

<유가 권8 08:01-03>

A: 諸[23(·)]如是等[33(/)]煩惱差別[33(·),구결자(ㄱ)]佛薄伽梵[22~32(·)]隨[역독선]所[역독선]增强[33(/)[14],34(·),21(·)]於彼種種煩惱門中[44(·),구결자(十)]建立差別[34(·),51(:)]

B: 諸[ㅋ]如是等[ㅅㄱ]煩惱差別[ㄱ]佛薄伽梵[ㅐ]隨所增强[ㅅㄱ,乙,ㅁ]於彼種種煩惱門中[十]建立差別[乙,x ㅣ]

C: 諸ㅋ 是 如 等ㅅㄱ 煩惱差別ㄱ 佛 薄伽梵ㅐ 增强ㅅㄱ 所乙 隨ㅁ {於}彼 種種 煩惱門 中十 差別乙 建立x ㅣ[15]

D: 모두 이같은 煩惱差別은 佛 薄伽梵이 增强한 바를 따라 저 種種 煩惱門 中에 差別을 建立하였다.

E: 이와 같은 따위가 번뇌의 차별인데, 부처님·바가바안께서는 더욱 강한 바에 따라 저 갖가지 번뇌의 문 중에서 차별됨을 세우셨다.

---

14) 33의 사선은 분명하지 않다. 아래쪽 단점이 43의 위치에 가깝고 이 점에서 시작된 수평선이 있으나 그 의미는 분명치 않다. 경계선 또는 구두선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15) 51 위치의 수직 쌍점도 사선이나 역사선 쌍점과 마찬가지로 'ㅣ'를 포함한 토일 것이다. 이 문장의 주체가 '佛'이므로 'ㅋ'를 포함한 토일 가능성(박진호)이 제시되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장이 '-ㅈㅣ'로 끝난다는 지적(김영욱)도 있었다.

<유가 권8 08:03-04>

A: 結[51(·)]者[23~33(·)]九結[33~43(·),구결자(印)]謂愛結等[33~43(/),53(·)]廣[22~32(·)]說[15~25(-),23~33(·)]如前[23(·),21(\),55(·)]

B: 結[ㅣ]者[ㅅㄱ]九結[印]謂愛結等[ㄴㄱ 印,ㅗ]廣[ㅛ]說[尸,ㅅㄱ]如前[ㅋ,X,ㅿ]

C: 結(ㅛ)ㅣ{者}(ㄴㄱ)ㅅㄱ 九結印 謂 愛結等ㄴㄱ 印ㅗ 廣ㅛ 說尸ㅅㄱ 前ㅋX[16] 如ㅿ

D: ①結이라는 것은 아홉 가지 結이니, 즉 愛結 等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앞의 (말한) 것과 같으며,

E: 맺음[結]이라 함은 아홉 가지 맺음[九結]으로서 사랑의 맺음[愛結] 따위인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며

<유가 권8 08:04>

A: 縛[51(·)]者[23~33(·)]三縛[=33~43(·),구결자(印)]謂貪[31(·)]瞋[31(·)]癡[31(·),55(·)]

B: 縛[ㅣ]者[ㅅㄱ]三縛[印]謂貪[ㅅ]瞋[ㅅ]癡[ㅅ,ㅿ]

C: 縛(ㅛ)ㅣ{者}(ㄴㄱ)ㅅㄱ 三縛印 謂 貪ㅅ 瞋ㅅ 癡ㅅ(ㅛ)ㅿ

D: ②縛이라는 것은 세 가지 縛이니, 즉 貪과 瞋과 癡이며,

E: 묶음[縛]이라 함은 세 가지 묶음[三縛]으로서 탐냄·성냄·어리석음이며,

<유가 권8 08:05-06>

A: 隨眠[51(·)]者[23~33(·)]七種隨眠[33~43(·)]謂[33(·)]欲貪隨眠等[33~43(/),53(·)]廣[22~32(·)]說[15~25(-),23~33(·)]如前[23(·),21(\),

16) '如前說'에서 '說'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유가사지론 자토 구결에서 '如前說'인 경우 '前ㅋ 說ㄴㄱ {如}ㅈ-'로 현토된다.

55(·)]

B: 隨眠[ㅣ]者[ㅅㄱ]七種隨眠[卬]謂[ㄱ]欲貪隨眠等[ㄴㄱ卬,ㅗ]廣[ㅛ]說[尸,ㅅㄱ]如前[ㅋ,X,分]

C: 隨眠(ㅛ)ㅣ {者}(ㄴㄱ)ㅅㄱ 七種 隨眠卬 謂ㄱ 欲貪隨眠 等ㄴㄱ 卬ㅗ 廣ㅛ 說尸ㅅㄱ 前ㅋX 如分

D: ③隨眠이라는 것은 七種 隨眠이니, 즉 欲貪隨眠 等이니 자세히 말하자면 앞의 (말한) 것과 같으며,

E: 수면(隨眠)이라 함은 일곱 가지 수면으로서 욕탐 수면(欲貪隨眠) 따위인데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며,

<유가 권8 08:06-07>

A: 隨煩惱[51(·)]者[23~33(·)]三隨煩惱[33~43(·)]謂[33(·)]貪[31(·)]瞋[31(·)]癡[31(·),55(·)]

B: 隨煩惱[ㅣ]者[ㅅㄱ]三隨煩惱[卬]謂[ㄱ]貪[人]瞋[人]癡[人,分]

C: 隨煩惱(ㅛ)ㅣ{者}(ㄴㄱ)ㅅㄱ 三隨煩惱卬 謂ㄱ 貪人 瞋人 癡人 (ㅛ)分

D: ④隨煩惱라는 것은 三隨煩惱이니, 즉 貪과 瞋과 癡며

E: 따른 번뇌[隨煩惱]라 함은 세 가지 따른 번뇌로서 탐냄·성냄·어리석음이며,

<유가 권8 08:07-08>

A: 纏[51(·)]者[23~33(·)]八纏[33~43(·)]謂无慙[31(·)]無愧[31(·)]慳沉[31(·)]睡眠[31(·)]掉擧[31(·)]惡作[31(·)]嫉妬[31(·)]慳恡[31(·),55(·)]

B: 纏[ㅣ]者[ㅅㄱ]八纏[卬]謂无慙[人]無愧[人]慳沉[人]睡眠[人]掉擧[人]惡作[人]嫉妬[人]慳恡[人,分]

C: 纏(ㅛ)ㅣ{者}(ㄴㄱ)ㅅㄱ 八纏卬 謂(ㄱ) 无慙人 無愧人 慳沉人 睡

眠ㅅ 掉擧ㅅ 惡作ㅅ 嫉妬ㅅ 慳恡ㅅ(ㅐ)ㅀ

D: ⑤纏이라는 것은 八纏이니, 즉 无慙과 無愧와 惛沉과 睡眠과 掉擧와 惡作과 嫉妬와 慳恡이며,

E: 얽음[纏]이라 함은 여덟가지 얽음[八纏]으로서 제 부끄러움 없음[無慙]·남 부끄러움 없음[無愧]·흐리멍텅함[惛沉]·잠을 잠[睡眠]·들뜸[掉擧]·뉘우침[惡作]·시새움[嫉妬]·아낌[慳恡]이다.

<유가 권8 08:08-10>

A: 暴流[51(·)]者[23~33(·)]四暴流[33~43(·),경계선]謂欲暴流[31(·)]有暴流[31(·)]見暴流[31(·)]无明暴流[31(·),55(·)]如暴流[34(·),11~21(/)]扼亦尒[=55(·)]

B: 暴流[ㅣ]者[ㅅㄱ]四暴流[ㅁ]謂欲暴流[ㅅ]有暴流[ㅅ]見暴流[ㅅ]无明暴流[ㅅ,ㅀ]如暴流[乙,X]扼亦尒[ㅀ]

C: 暴流(ㅐ)ㅣ{者}(ㄴㄱ)ㅅㄱ 四暴流ㅁ 謂(ㄱ) 欲暴流ㅅ 有暴流ㅅ 見暴流ㅅ 无明暴流ㅅ(ㅐ)ㅀ 暴流乙 如X 扼 亦 尒ㅀ

D: ⑥暴流라는 것은 四暴流이니, 즉 欲暴流와 有暴流와 見暴流와 无明暴流이며, 暴流와 같이 扼도 또한 그러하며,

E: 사나운 흐름[暴流]이라 함은 네 가지 사나운 흐름으로서 욕폭류(欲暴流)와 유폭류(有暴流)와 견폭류(見暴流)와 무명 폭류(無明暴流)인데 사나운 흐름과 같이 멍에[軛] 역시 그러하며,

<유가 권8 08:10-11>

A: 取[51(·)]者[23~33(·)]四取[33~43(·)]謂[33(·)]欲取[31(·)]見取[31(·)]戒禁取[31(·)]我語取[31(·),55(·)]

B: 取[ㅣ]者[ㅅㄱ]四取[ㅁ]謂[ㄱ]欲取[ㅅ]見取[ㅅ]戒禁取[ㅅ]我語取[ㅅ,ㅀ]

C: 取(ㅐ)ㅣ{者}(ㄴㄱ)ㅅㄱ 四取ㅁ 謂ㄱ 欲取ㅅ 見取ㅅ 戒禁取ㅅ

我語取ㅅ(ㅐ)ㅎ

D: ⑦取라는 것은 四取이니, 즉 欲取와 見取와 戒禁取와 我語取이며,

E: 잡음[取]이라 함은 네 가지 잡음으로서 욕심 세계 잡음[欲取]과 소견에 대한 잡음[見取]과 계금에 대한 잡음[戒禁取]과 나의 말 잡음[我語取]이며,

<유가 권8 08:11-13>

A: 繫[51(·)]者[23~33(·)]四繫[33~43(·)]謂[33(·)]貪身{11(·)}繫[31(·)]瞋身繫[31(·)]戒禁取身繫[31(·)]此實執取身繫[31(·),55(·)]

B: 繫[ㅣ]者[ㅅㄱ]四繫[卬]謂[ㄱ]貪身繫[ㅅ]瞋身繫[ㅅ]戒禁取身繫[ㅅ]此實執取身繫[ㅅ,ㅎ]

C: 繫(ㅐ)ㅣ{者}(ㆍㄱ)ㅅㄱ 四繫卬 謂ㄱ 貪身繫ㅅ 瞋身繫ㅅ 戒禁取身繫ㅅ 此實執取身繫ㅅ(ㅐ)ㅎ

D: ⑧繫라는 것은 四繫이니, 즉 貪身繫와 瞋身繫와 戒禁取身繫와 此實執取身繫이며,

E: 매임[繫]이라 함은 네 가지 매임으로서 탐내는 몸의 매임[貪身繫]과 성내는 몸의 매임[瞋身繫]과 계금에 대하여 고집하는 몸의 매임[戒禁取身繫]과 이것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몸의 매임[此實執取身繫]이다.

<유가 권8 08:13-14>

A: 盖[51(·)]者[23~33(·)]五盖[33~43(·)]謂貪欲盖[31(·)]瞋恚盖[31(·)]惛沉睡眠盖[31(·)]掉擧惡作盖[31(·)]疑盖[31(·),55(·)]

B: 盖[ㅣ]者[ㅅㄱ]五盖[卬]謂貪欲盖[ㅅ]瞋恚盖[ㅅ]惛沉睡眠盖[ㅅ]掉擧惡作盖[ㅅ]疑盖[ㅅ,ㅎ]

C: 盖(ㅐ)ㅣ{者}(ㆍㄱ)ㅅㄱ 五盖卬 謂(ㄱ) 貪欲盖ㅅ 瞋恚盖ㅅ 惛沉睡眠盖ㅅ 掉擧惡作盖ㅅ 疑盖ㅅ(ㅐ)ㅎ

D: ⑨盖라는 것은 五盖이니, 즉 貪欲盖와 瞋恚盖와 惛沉睡眠盖와 掉擧惡作盖와 疑盖이며,

E: 덮개[蓋]라 함은 다섯 가지 덮개로서 탐냄의 덮개[貪欲蓋]와 성냄의 덮개[恚蓋]와 흐리멍텅하게 잠을 잠의 덮개[惛沉睡眠蓋]와 들뜨고 뉘우침의 덮개[掉擧惡作蓋]와 의심의 덮개[疑蓋]이며,

<유가 권8 08:14-16>

A: 株杌[51(·)]者[23~33(·)]三株杌[33~43(·)]謂貪[31(·)]瞋[31(·)]癡[31(·),55(·)]如株杌[34(·),11~21(/)]如是[11(·)]垢[31(·)]常害[31(·)]箭[31(·)]所有[31(·)]惡行[31(·)]亦尒[55(·)]

B: 株杌[ㅣ]者[ㅅㄱ]三株杌[卬]謂貪[ㅅ]瞋[ㅅ]癡[ㅅ,ㅀ]如株杌[乙,X]是如[ㅈ]垢[ㅅ]常害[ㅅ]箭[ㅅ]所有[ㅅ]惡行[ㅅ]亦尒[ㅀ]

C: 株杌(刂)ㅣ{者}(ㄴㄱ)ㅅㄱ 三株杌卬 謂 貪ㅅ 瞋ㅅ 癡ㅅ(刂)ㅀ 株杌乙 如X 是 {如}ㅈ 垢ㅅ 常害ㅅ 箭ㅅ 所有ㅅ 惡行ㅅ 亦 尒(ㄴ)ㅀ

D: ⑩株杌이라는 것은 三株杌이니, 즉 貪과 瞋과 癡이며, 株杌과 같이 이와 같이 ⑪垢와 ⑫常害와 ⑬箭과 ⑭所有와 ⑮惡行이 또한 그러하며,

E: 그루터기[株杌]라 함은 세 가지 그루터기로서 탐냄·성냄·어리석음이며, 그루터기와 같이 이러한 때[垢]와 항상 해침[常害]과 화살[箭]과 가지고 있음[所有]과 나쁜 행[惡行] 역시 그러하다.

<유가 권8 08:16-17>

A: 根[51(·)]者[23~33(·)]三不善根[33~43(·)]謂貪不善根[31(·)]瞋不善根[31(·)]癡不善根[31(·)]癡不善根[31(·),55(·)]

B: 根[ㅣ]者[ㅅㄱ]三不善根[卬]謂貪不善根[ㅅ]瞋不善根[ㅅ]癡不善根[ㅅ,ㅀ]

C: 根(ㅢ)ㅣ{者}(ㅅㄱ)ㅅㄱ 三不善根卬 謂(ㄱ) 貪不善根ㅅ 瞋不善根ㅅ 癡不善根ㅅ(ㅢ)ㅁ

D: ⑯根이라는 것은 三不善根이니, 즉 貪不善根과 瞋不善根과 癡不善根이며,

E: 뿌리[根]라 함은 세 가지 착하지 못한 뿌리[三不善根]로서 탐냄의 착하지 못한 뿌리와 성냄의 착하지 못한 뿌리와 어리석음의 착하지 못한 뿌리이며,

<유가 권8 08:17-18>

A: 漏[51(·)]者[23~33(·)]三漏[33~43(·)]謂欲漏[31(·)]有漏[31(·)]无明漏[31(·),55(·)]

B: 漏[ㅣ]者[ㅅㄱ]三漏[卬]謂欲漏[ㅅ]有漏[ㅅ]无明漏[ㅅ,ㅁ]

C: 漏(ㅢ)ㅣ{者}(ㅅㄱ)ㅅㄱ 三漏卬 謂(ㄱ) 欲漏ㅅ 有漏ㅅ 无明漏ㅅ(ㅢ)ㅁ

D: ⑰漏라는 것은 三漏이니, 즉 欲漏와 有漏와 无明漏이며,

E: 샘[漏]이라 함은 세 가지의 샘으로서 욕루[欲漏]와 유루[有漏]와 무명루[無明漏]이며,

<유가 권8 08:18-20>

A: 匱[51(·)]者[23~33(·)]三匱[33~43(·)]謂貪[31(·)]瞋[31(·)]癡[31(·),55(·)]如匱[34(·),11~21(/)]如是[11(·)]燒[31(·)]惱[31(·)]有諍[31(·)]火[31(·)]熾然[31(·)]稠林[31(·)]亦尒[55(·)]

B: 匱[ㅣ]者[ㅅㄱ]三匱[卬]謂貪[ㅅ]瞋[ㅅ]癡[ㅅ,ㅁ]如匱[乙,X]如是[攴]燒[ㅅ]惱[ㅅ]有諍[ㅅ]火[ㅅ]熾然[ㅅ]稠林[ㅅ]亦尒[ㅁ]

C: 匱(ㅢ)ㅣ{者}(ㅅㄱ)ㅅㄱ 三匱卬 謂(ㄱ) 貪ㅅ 瞋ㅅ 癡ㅅ(ㅢ)ㅁ 匱乙 如X 是{如}攴 燒ㅅ 惱ㅅ 有諍ㅅ 火ㅅ 熾然ㅅ 稠林ㅅ 亦 尒(ㅅ)ㅁ

D: ⑱置라는 것은 三置이니, 즉 貪과 瞋과 癡며, 置와 같이 이와 같이 ⑲燒와 ⑳惱와 ㉑有諍과 ㉒火와 ㉓熾然과 ㉔稠林이 또한 그러하며,

E: 모자람[置]이라 함은 세 가지 모자람으로서 탐냄·성냄·어리석음이며, 모자람과 같이 이러한 태움[燒]과 괴로워함[惱]과 다툼 있음[有諍]과 불[火]과 활활 탐[熾然]과 빽빽한 숲[稠林] 등도 역시 그러하며,

<유가 권8 08:20>

A: 拘㝵[=51(·)]者[23~33(·)]有[역독선]五拘㝵[=51(·)]

B: 拘㝵[ㅣ]者[ㅅㄱ]有五拘㝵[ㅣ]

C: 拘㝵(ㅢ)ㅣ{者}(ㅅㄱ)ㅅㄱ 五拘㝵 有ㅣ

D: ㉕[17]拘㝵라는 것은 五拘㝵가 있다.

E: 거리낌[拘礙]이라 함은 다섯 가지 거리낌이 있나니,

<유가 권8 08:20-22>

A: 一顧戀其身[34(·),55(·)]二顧戀諸欲[34(·),55(·)]三樂相雜住[55(·)]四闕[역독선]隨順教[34(·),55(·)]五得[역독선]微少善[34(·),44~55(\)]便[21(·)]生喜足[34(·),15~25(/),51(·)]

B: 一顧戀其身[乙,分]二顧戀諸欲[乙,分]三樂相雜住[分]四闕隨順教[乙,分]五得微少善[乙,x+]便[ㅁ]生喜足[乙,x矢,ㅣ]

C: 一 其 身乙 顧戀(ㅅ)分 二 諸 欲乙 顧戀(ㅅ)分 三 樂相雜住(ㅅ)分 四 隨順教乙 闕(ㅅ)分 五 微少善乙 得x+ 便ㅁ 喜足乙 生x矢ㅣ

D: 첫째, 其 身을 돌아보며, 둘째, 諸 欲을 돌아보며, 셋째, 樂相雜住하며, 넷째, 教를 좇는 것을 闕하며, 다섯째, 微少善을 얻는 데

17) 앞에서 26가지로 구별했으나 17번째인 '惡行'이 빠져 총 25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서 곧 흡足을 내는 것이다.

E: 첫째는 그 몸을 그리워함이요, 둘째는 모든 욕심을 그리워함이요, 셋째는 즐거움과 서로 뒤섞여서 머무름이요, 넷째는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모자람이요, 다섯째는 조그마한 착함을 얻고서도 기쁨과 만족한 생각을 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구결학회, pp.57-77.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215-231.

서민욱(2004), 「'如'에 대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구결학회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이승재 · 안효경(2002), 「角筆符號口訣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115-145.

이 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3)」,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232-247.

장경준(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瑜伽師地論』 권5,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구결학회, pp.205-225.

_____(2003),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瑜伽師地論』 권5,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pp.191-2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향린동산 81-20〕
E-mail: ljk0201@hotmail.com
접수일자: 2004. 06. 30.
게재결정: 2004. 07. 16.

A Decipherment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4)

-Focusing on vol.Ⅷ, 07:01-08:22-

Lee, Jeon Kyung

This paper surveys the overall textual structure of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